

序

「祖上崇拜」특히 조상의 아름다운 德行을 추앙하고 同族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일에는 예로부터 우리 겨레의 중요한 傳統精神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근래 海外의 거센 風潮가 물밀 듯 들어와 우리의 美風良俗을 좀먹고 靛色시키는데, 高氏宗門會에서 선조의 史蹟을 集大成하는 「高氏世錄」을 편찬 간행하게 된 것은 民族史上 한 驚異의 인 學事로 意義 깊은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高氏는 우리나라 氏姓 二五八姓(一九六〇年調査)중 著姓에 속한다. 萬姓譜와 氏族統譜에 의하면 高氏의 本貫이 十餘種으로 되어 있으나 이른바 高朱蒙의 후예라고 하는 延日 橫城의 高氏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濟州(耽羅)를 本貫으로 삼고 있다.

濟州高氏世譜에 따르면 耽羅國主는 始祖 高乙那로부터 代代 이를 世襲하여 오다가 新羅盛時에 高厚가 그 아우 두 사람과 함께 新羅에 入朝하여 星主의 稱號를 받았고 그후 또 高末老에 이르러 高麗에 入朝하니 이가 곧 濟州高氏의 中始祖가 되었다고 한다. 高麗史 太祖世家 二十一年(西紀九三八)冬 十二月條에 「耽羅國太子 末老가 來朝하니 星主 王子의 爵을 賜하였다」고 記錄된 末老가 즉 그였다.

그러나 그후 어느 때인지 星主系統과 王子系統의 氏姓이 달라져 星主는 여전히 高氏가 世襲하고 王子는 그 外孫인 文氏가 이어, 高麗 忠烈王 二十一年에 耽羅 星主 高仁旦과 王子 文昌 祐에게 여러가지 物種을 賜한 일이 있었다.

近朝 太宗二年(西紀一四〇二)에 이르러 星主 高鳳禮와 王子 文忠世 등이 入朝하여 「星主」

「王子」의 칭호가 참람하다 하여 星主를 「左都知管」、王子를 「右都知管」으로 개칭하고 그후 高鳳禮는 서울로 올라와 侍衛職의 摠制가 되어 太宗의 信寵을 받기까지 하였다.

어떻든 三國時代로부터 高麗朝 近朝를 통하여 高氏의 名人들이 輩出하여 우리나라 政治·文化面에 寄與 貢獻한 事蹟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거나 耽羅의 史蹟 書庫라고 할 수 있는 弘化閣이 世宗十七年(西紀一四三五)에 全燒됨으로써 耽羅史研究와 郷土文化研究에 重要資料의 損失을 招來하게 된 것은 一大遺憾이었다.

이제 高氏宗門에서는 모든 힘과 方法을 다하여 널리 史料를 採集하여 世錄을 編纂하게 되었는데 그 內容을 보면 耽羅小史를 비롯하여 先祖의 科宦 著述 學行 忠孝烈 등의 行蹟을 收錄하는 동시에 이를 일일히 한글로 翻譯하여 기리 後孫에게 뿐 아니라 기타 國史研究者에 대하여도 涉獵의 좋은 資料를 提供하였다고 보겠다.

내가 國史學徒의 한 사람으로 또 高氏門中の 名士들과 親交가 깊은 관계로 卷頭의 一文을 청하여 왔으므로 拙文이나 마 몇 줄 적는 바이다.

一九七三年 一月 日

學術院長 文學博士 李

丙 燾 識

發刊辭

民族主體性的確立과 民族文化의 올바른 繼承이 요즘처럼 간절히 요청된 적은 없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나」를 알며 「내」것을 올바르게 認識하고 尊重함으로써 「나」와 「우리」가 서야 할 座標와 나가야 할 道程을 主體的으로 設定하자는 것이다.

모든 認識은 「나」로부터 出發한다. 그러면 그 「나」는 무엇이며, 「나」를 어떻게 있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歷史요, 내 집의 歷史요, 우리 氏族의 歷史요, 나아가서 우리 民族과 나라의 歷史이다. 따라서 「나」를 包容하고 있는 歷史를 再檢討하는 데서 民族主體性的의 確立은 비롯되는 것이며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슬기로운 先祖가 남긴 文學과 哲學을 涉獵하는데서 民族文化의 올바른 繼承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半萬年의 悠久한 歷史를 가진 우리 氏族의 淵源을 다시 살피고 先祖들의 遺訓, 文化를 總整理한 「高氏世錄」을 上梓하는 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高氏世錄」發刊의 論議는 오래전부터 中央宗門會 任員들 사이에서 提起되었으나 감히 이 방대한 사업을 착수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資料蒐集, 考證, 翻譯 등의 編纂作業에 끈기 있는 努力과, 出版發行에 莫大한 資金이 所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찬란한 先祖의 史蹟編纂을 언제까지나 遷延한다는 것은 後孫된 道理가 아니므로 一九六八年 文敬公 墓碑建立時에 다시 舉論되었다가, 一九七一年 一月에 在日本 元一 宗氏, 副委員長 雄 宗氏 등有志들의 發議가 契機가 되어, 一九七二年 三月 十三日 編纂委員會를 組織하고 歷史的인 大事業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어인 三個月의 歲月이 흘렀다. 그동안 編纂業務에 關與하신 宗氏諸位의 夏暑冬寒을 무릅쓰고 不徹晝夜한 心血어린 刻苦는 어떻게 筆舌로 다 表現할 것인가. 그 보람이 結晶하여 이에 「高氏世錄」과 附錄 「宗事要覽」을 上梓케 되었으니 우리 宗門의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특히 우리나라 史學界의 泰斗이신 李丙燾博士께서 卷頭に 序文을 寄稿하여 주셨음은 畫龍點睛의 榮光이며, 아울러 耽羅小史를 손수 校閱하시어 耽羅의 先史時代를 밝혀 주신데 대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本事業을 着手한지 三年동안 이의 完成을 위하여 總指揮役을 담당한 副委員長 京善 宗氏 考證, 翻譯, 原稿作成 등의 編纂業務를 담당한 光殷, 平奎, 廷基 委員, 運營과 經理面을 담당한 昌玉, 才元, 有坤 委員, 資料의 蒐集을 담당한 各地方委員, 資金面에서는 泰俊, 元一, 漢俊, 女奎, (以上 在日僑胞) 判南 (群山), 允錫 (서울) 諸 宗氏의 特別贊助, 各地方 宗門會長을 비롯한 京鄉諸宗의 物心兩面의 協助에 대하여 뜨거운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이 책자로 하여 先祖의 遺德을 받들고 親睦 團合하는 契機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一九七三年 一月 日

高氏世錄編纂委員會 委員長 高 在 旭 謹 識